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 성경님이 좇추시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양사랑의교회**

GWANGYANG SARANG PRESBYTERIAN CHURCH kysarang.org
545-881 진남 광양시 중동 1617-1번지 교회전화 061)793-1294

SAME THING YE SAY

SAME MIND

SAME OPINION

SAME PRODUCT

2015년 설날감사예식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2015
설날 가정예배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 설날 감사 예식 지침 •

■ 예식 전에 알아 두어야 할 내용

설을 맞아 각 가정에서는 설날감사예배를 드리고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한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며 한 해를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다. 모인 사람들은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장만한 음식을 나눈다. 시간을 내어 웃어른과 친척을 찾아가 새해 축하 인사를 드린다.

■ 설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주의점

- ① 음식 준비 / 음식은 조상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니므로 제사상으로 차리면 안됩니다. 그러나 간편한 음식을 준비하였다가 감사예배 후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 ② 영정과 촛불 / 고인의 사진을 준비하는 것은 좋으나 향이나 촛불을 켜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 ③ 절하는 문제 / 고인의 사진이나 영정 또는 음식물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금한 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죄가 되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고 살아 계신 부모님께 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 ④ 불신 가정에서의 문제 / 가족 전체가 불신 가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절하는 대신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이 때 분명하게 신앙상의 이유로 절은 할 수 없지만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다고 가족 앞에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⑤ 산소에 성묘 갔을 때 /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한다든지 묘지에 술을 붓는 행위는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묘에 묻힌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묘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면 됩니다. 불신 가정일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 절할 때에 함께 서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 ⑥ 기타 / 우리도 언젠가는 조상들처럼 육신은 한줌의 흙이 되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깨달아야 하며, 조상들이 볼 때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다짐해야 하고, 형제 자매들 간에 더없는 우애와 사랑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시간이어야 하며, 조상들이 남겨 놓고 가신 훌륭한 뜻을 받들어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다음 페이지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되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하셔도 됩니다.

(통일 28)

찬양
R. Robinson, 1758

복의 근원 강림하사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이호외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심장 7:12)

28

NETTLETON: 8.7.8.7. D.
Wyeth's Repository of Sacred Music, 1813

보통으로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되 네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없도다
이와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나를 주께 매소서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 **가훈설명** **가장**
(가정의 가훈을 설명하면서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한다)

• **2015년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나눈다)

• **덕담(격려와 칭찬의 시간)** **다같이**
(새해 소망을 나누거나, 가족간에 사랑의 고백을 한다.)

• **중보기도** **인도자**
(기도제목을 중심으로 축복하며 중보한다)

• **찬송** **다같이** **383장 중에서**

• **축복기도** **가장**(가장 연장자나 모든 가족들이 존경할 만한 자)
(온 가족의 소망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축복하며 기도한다)

• **주기도** **다같이**(폐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예배 후 준비한 음식을 다같이 나누면서 새해의 계획을 서로 얘기하고 기념 촬영도하고 격려하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며 웃어른은 물론 형제, 자매간에도 서로 인사를 나눈다. 이웃 어른들도 찾아 뵙고 세배를 드린다.

※ 예배 중에 세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시간이므로 예배 후에 세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 설날 감사 예식 순서 •

* 인도자 : 가장이나 제일 연장자가 진행 하는 것이 좋겠다.

• **개식사** **인도자**
오늘은 우리 민족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설날입니다. 지난 한해도 우리나라와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 **예배의 부름** **인도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민6:24-26)
고마우신 하나님, 설날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형제간에 사랑을 나누며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신앙고백**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송** **28장(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같이**

• **기 도** **가족 중에 맡은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만왕의 왕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

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기쁜 설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부모님, 그리고 남편, 아내, 자녀 모두가 은혜 속에 살도록 지켜 주시고 모든 사업과 생업을 축복하셔서 그 어떤 한 해 보다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축복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자손들은 신앙의 유산을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신앙의 대(代)가 자손만대까지 이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부득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선포된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특별찬양** **559장(사철에봄바람불어있고)** **자녀모두**

• **성경말씀** **계시록3:20, 창18:2~4** **말은이(가족 중에 자녀)**

〈계3:20〉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창18:2~4〉 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 **말씀선포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가족을 대표하여 한 사람이 낭독

설은 새로운 한 해의 첫날입니다. 우리는 알수 없는 길을 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것입니다. 이 한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늘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16)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그리고누구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사

랑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이 사랑이 매우강력해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것이 세상에 없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롬8:38-39)

둘째, 그 말씀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올 한해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있을 때,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하셨습니다.(계 3:20) 하나님은 성경, 기도, 금식, 성찬, 그리스도인의 교제, 선행...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은총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 다가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계시의 문으로 이용하시듯이, 우리가 살아갈 한 해의 모든 시간들, 특히 원하지 않는 경험들,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 때로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셋째, 어떤 자세로 그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낯선 자를 대접하는 중에 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일상의 경험을 거룩한 문으로 바꾸고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자세를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나그네를 보자 자신의 장막에서 달려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말합니다. “저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리하지지 않고는 제 집 앞을 지나쳐 떠날 수 없나이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나무 그늘 아래 앉히고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로 떡을 빚고 송아지를 잡아 요리해 버터와 우유와 함께 이 낯선 이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라는 문 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자녀를 얻으리라!” 아버지께서 이 한해 모든 경험의 문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이든 아브라함처럼 나가 영접하고 그 경험을 받아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홀연히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 여러분을 위로하고 먹이실 것입니다.

• **찬송**

다같이

찬송가 550, 218, 204, 436 중